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기획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3. 28.(금) ~ 4. 4.(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기획 공무국외출장 결과요약

□ 관련근거

- 기획조정부-989(2024.12.20.) 「2024년도 제6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5년도 발전방향 기획사업 공무국외출장 허가
- 기획조정부-283(2025.03.24.) 「2025년도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결과보고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기획 공무국외출장 허가
- 기획조정부-300(2025.03.26.)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기획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안)」

□ 출장개요

- (출장목적) 정책연구 거버넌스와 관리전략, 책무성·자율성 기반 연구 수월성 확보방안 등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마련 관련 조사·분석
- (출장기간) 2025. 3. 28.(금) ~ 2025. 4. 4.(금), 6박 8일 (기내 1박 포함)
- (출장지) 미국(워싱턴 D.C.)
- (출장자)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 주요내용

- ① 연구회-한국행정학회 업무협약('25.3.28.)
- ② 조지워싱턴대학교-인디애나대학교 한국학 컨퍼런스 참석('25.3.29.)
- ③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참가('25.3.30.~3.31.)
*경제·인문사회연구분야 국가연구체제 인식조사 결과공유
- ④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 방문 및 업무협약('25.4.1.)
- 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방문 및 업무협약('25.3.29.)
※당초 4월 2일(수)로 기획·제안하였으나, 기관 내부일정을 고려하여 3.29.(토)로 조정추진

□ 세부일정

국가	일자	시간	출장일정 및 주요활동	비고
한국	3. 28.(금)	10:15 ^{한국} ~ 10:50 ^{미국}	·(출국) 인천 → 워싱턴	KE0093 대한항공
미국		12:00-14:00	·연구회-한국행정학회(KAPA) 업무협의 - (KAPA) 학회장,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3. 29.(토)	09:00-13:00	·조지워싱턴대학교-인디애나대학교 한국학 컨퍼런스 참석	한↔영 순차통역
		13:00-15:00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방문 및 업무협의 - (GWIKS) 소장, 부소장 등	
	3. 30.(일)	09:00-12: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한국분과(SKPA) 등 세션	
		13:00-19: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KAPA 세션 - 미국행정학회 한국부문 연구자 네트워킹	
	3. 31.(월)	09:00-12: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세션	
		14:00-19: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가 - 미국행정학회 SKPA 연구포스터세션 * (주제)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ors: Focusing o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4. 1.(화)	14:00-17:00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 방문 및 업무협의 - (SAIS) 학장, 부학장 등	한↔영 순차통역
	4. 2.(수)	10:30-16:30	·출장일정 주요결과 종합·검토회의	
	4. 3.(목)	오전	·출국(워싱턴(13:15) 출발)	KE0094 대한항공
한국	4. 4.(금)	오후	·입국(인천(17:40) 도착)	

□ 후속조치 및 향후일정

구분	25년									26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속조치, 출장결과 종합·보고	조치 종합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획	의견 수렴	결과 보고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한 ※변동가능			방문 예정							
한국행정학회 국제 학술대회 참석 ※세종(공동캠퍼스)			학회 참석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제언도출 ※TF 구성·운영 또는 연구용역		기획 착수	기초 자료 종합	분석		결과 도출				
국가정책연구체제 인식조사(2차년도) 추진			기획	착수	설문 개발	조사	종합	결과 도출		
차년도 국제학회 기획-참가* ※2026년 공무국외출장								프로포절 작성-제출		학회 참가 (발표)

* 2025년 해외출장 후속조치,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제언도출 및 국가정책연구체제 인식조사(2차년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외학회 참가(발표) 등을 통한 성과보고, 정책제언

1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정책연구 거버넌스와 관리전략, 책무성·자율성 기반 연구 수월성 확보 방안 등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마련 관련 조사·분석
- 국제 세미나(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책연구체제를 공유하고, 싱크탱크 간 분석, 차별화 전략 도출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25.3., 미국 워싱턴D.C.) 계기, 한국분과에 참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공유·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공공분야 정책현안과 동향에 대한 기민한 파악
- 한국 싱크탱크 거버넌스로서 연구회 체제를 공유하고, 방문기관의 체제 공유·논의 등 콜로키움 형식을 통해 조사·분석 추진

2

출장지역

- 미국(워싱턴D.C.)

3

출장기간

- 2025. 3. 28.(금) ~ 2025. 4. 4.(금), 6박 8일 (기내 1박 포함)

4

출장자

-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국가	일자	시간	출장일정 및 주요활동	비고
한국	3. 28.(금)	10:15 ^{한국} ~ 10:50 ^{미국}	·(출국) 인천 → 워싱턴	KE0093 대한항공
미국		12:00-14:00	·연구회-한국행정학회(KAPA) 업무협의 - (KAPA) 학회장,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3. 29.(토)	09:00-13:00	·조지워싱턴대학교-인디애나대학교 한국학 컨퍼런스 참석	한↔영 순차통역
		13:00-15:00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방문 및 업무협의 - (GWIKS) 소장, 부소장 등	
	3. 30.(일)	09:00-12: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한국분과(SKPA) 등 세션	
		13:00-19: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KAPA 세션 - 미국행정학회 한국부문 연구자 네트워킹	
	3. 31.(월)	09:00-12: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 미국행정학회 세션	
		14:00-19:00	·2025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가 - 미국행정학회 SKPA 연구포스터세션 * (주제)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ors: Focusing o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4. 1.(화)	14:00-17:00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 방문 및 업무협의 - (SAIS) 학장, 부학장 등	한↔영 순차통역
	4. 2.(수)	10:30-16:30	·출장일정 주요결과 종합·검토회의	
	4. 3.(목)	오전	·출국(워싱턴(13:15) 출발)	KE0094 대한항공
한국	4. 4.(금)	오후	·입국(인천(17:40) 도착)	

□ 주요성과

- 국가정책연구체제 인식조사 기반,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회 체제에 대한 첫 해외 공유·논의자리로서 한국 정책·행정의 혁신사례에 대한 관심 제고
 - 인식조사 기반 한국형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국제적 차원의 학계, 전문가 등에 공유, 논의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의 논의를 통해 한국학 연구분야로서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수행 의견 확인
 - ※ 2025년 6월 방한 예정으로, 필요시 기관방문 등 상호협력
-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과의 소통·협력 관계 기반, 연구 거버넌스로서의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관심 확인
- 국가정책연구체제로서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연구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확인 및 차년도 학회참여 제안 수신(개최지: 미국 서부지역)
 - ※ 기획상황을 고려하여 세션구성 등 별도검토 필요

□ 향후과제

- 경제·인문사회분야 학회, 싱크탱크 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 연구체제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 제안, 싱크 탱크 발전방향 관련 주요 아젠다 중심의 조사·분석
 - ※ TF 운영 또는 공동연구 추진
- 한국형 연구 거버넌스로서의 국가정책연구체제 고도화(2차년도) 일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분석범위 확대) 현재-기대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 추진

2 주요 결과

□ 개 요

- 일 시: 2025. 3. 28.(금), 12:00~14:00 (현지시간)
- 장 소: Royal Sonesta 회의실 등
- 참석자:

구분	성명	비고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한국행정학회 (KAPA)	정광호 학회장	
	최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형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성시경 차기회장	

□ 주요내용

-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기획 관련 추진방향 공유
 - 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지원하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정책지식생태계, 정책생산시스템에 대한 기획을 추진중임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기여도 제고 등 자율과 책무 기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K-행정 관련 한국행정학회 주요 추진동향 공유
 - 한국행정학회는 오는 6월, 세종공동캠퍼스에서 'K-행정의 역사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체제 등에 또한 주요한 연구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기관 간 협업사항 논의 등
 - 연구회의 미국행정학회 참여 계기, 지속적으로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연구 성과의 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함

□ 개 요

- 일 시: 2025. 3. 29.(토), 09:00~13:00 (현지시간)
- 장 소: Ellio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회의실 등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조지워싱턴 대학교	Dong Hyin Hong (Researcher)
	Carian Geissler (Researcher)
	Lauren Labogin-Moses (Researcher)
	John Lee (Researcher)
	Avia Solomon (Researcher)
인디애나 대학교	Jess Smith (Researcher)
	Shruti-Sivakumar (Researcher)
	Michael Betar IV (Researcher)

※이외, 한국국제교류재단, 오하이오주립대 등 참여 多 (약 4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한국학 컨퍼런스 개요
 - 대학교수,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한국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연구결과, 성과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중인 가운데 본 컨퍼런스를 개최함
 - 금번 컨퍼런스는 영화와 문화, 문학, 젠더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 논의함

※ (영화와 문화) Rewriting Masculinity : A Study of Evolving Gender Roles in Korean Cinema Post-2000,
 (문학) Fishing for (im)possibility : A deep dive into image-ining Cheon Myeong-Kwan's Whale,
 (젠더) Gender, Mental Health, and Activism : The Role of Literature in South Korea's Feminist Movement 등

○ 한국학 관련 주요연구 동향

- 대중매체와 문화컨텐츠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전통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적 차원의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는 거시적인 동향으로 보임
- 한국의 인구정책 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세대별 기대역할 등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며, 관련 정책동향과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임

○ 토론 및 기타 논의사항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가족패널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등 다양한 연구 데이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한국학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 요청 시 지원하겠음
-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 주길 제안함

□ 사진자료



□ 개 요

- 일 시: 2025. 3. 29.(토) 13:00-15:00 (현지시간)
※기관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변경, 추진^(당초) 25.4.2.(화)→3.29.(토))
- 장 소: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회의실 등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GW 한국학연구소	Celeste Arrington (Director of GW Institute for Korea studies)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of GW Institute for Korea studies)
	Raveena Ugale (Program Manager)
	TAkara Askew (Program Coordinator)
	Peter Moody (Visiting Scholar)

※현지 통역사 배석

□ 주요내용

-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기획 관련 추진방향 공유
 -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임
 - 기관고유사업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기획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연구 거버넌스와 관리전략,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발전방향과 기관 간 협력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요연구 및 연구거버넌스 운영체계 공유
 - 본 연구소는 한국학 전문가 간 생산적인 연구와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개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한국학 프로그램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보다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거버넌스 차원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유산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활발히 수행중임
- 최근에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의 한국학 연구자 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차원의 연구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온라인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함에 따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리적 차원에서, 워싱턴 D.C.의 상징성과 의미를 기반으로 대학-싱크탱크-학계 등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학 연구가 공공외교 등 정책적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학문과 정책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연구영역이자 사업인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정책연구 발전방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기관 간 교류·협력 추진 제언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한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분야별 연구지원 및 수행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류·협력 필요시 협조하겠음
- 연구소는 오는 6월 경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바, 향후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소통하겠음 ※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가능

□ 사진자료



기관개요	<p>·2016년에 설립된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에 있는 대학 연구소</p> <p>·GWIKS은 한국학 아카데미(AKS)의 후원금으로 설립</p> <p>·GWIKS의 사명은 GW의 기존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합, 강화,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더 넓은 DC 지역과 그 너머의 확장</p>
주요역사	<p>·1821년 의회법에 의해 설립</p> <p>·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적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성장하여, 오늘날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수도에서 가장 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50개 주, 워싱턴 DC, 130개국에서 온 2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학중</p> <p>·포괄적인 학부 및 대학원 자유과 교육과 의학, 공중보건, 법학, 공학, 교육, 경영학, 전문 연구, 국제 관계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p>
교육과정	<p>·포괄적인 학부 및 대학원 자유과 교육과 의학, 공중보건, 법학, 공학, 교육, 경영학, 전문 연구, 국제 관계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p> <p>·1980년대 초에 한국학 구성 요소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고등 교육 기관 중 하나</p>
명성	<p>·70명 이상의 제휴 교수진이 있는 GW의 아시아 연구를 위한 Sigur Center는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가장 큰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조정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및 정책 연구의 질로 인해 국가적,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기관</p>
동 문	<p>·소재필은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유명한 지도자였으며, 1892년 컬럼비아 의과대학(현재 GW의 의학 및 건강 과학 대학)을 졸업하여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인</p> <p>·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07년에 GW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49년에 우수 동문 공로상을 수상, 1954년에 명예 학위(법학 박사)를 수여</p> <p>·대한민국 13대 대통령(1988-1993)이었던 노태우는 1989년에 명예학위를 받았고, 2009년 6월 17일에 GW는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2008-2013)이었던 이명박에게 명예 공공서비스 박사학위를 수여(GW 경영대학원 방문학자 활동(약 2년))</p> <p>·현대, 대우, 코오롱, 삼성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임원들 또한 GW에서 공부했거나 학위를 취득 또는 명예학위 수여</p> <p>·한국은 1,000명 이상의 동문을 거느린 GW의 가장 크고 오래된 국제 동문 모임의 본거지이며, GW는 이승만 외에도 5명의 한국동문에게 Distinguished Alumni Achievement Awards를 수여</p>

□ 개 요

- 일 시: 2025. 3. 30.(일), 09:00-12:00 (현지시간)
- 장 소: The Mayflower Hotel-세션홀 (2025 미국행정학회 개최지)
- 주요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SKPA 세션	Tzuhao (Howard) Chen (SUNY-Albany)
	Natasha Christie (University of North Florida)
	Laura Hand (University of North Dakota)
	Pedro Robles (Penn State University)
	Peng Ru (Tsinghua University)
	Blair Thomas (Western Kentucky University)
Rutgets 세션	Kasny Dams (Rutgers University-Newark)
	Marc Holzer (Suffolk University-Boston)
	Valerie L. Patterso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lan R Shark (George Mason University)

※병행세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요세션 주제별 교차참석 (약 5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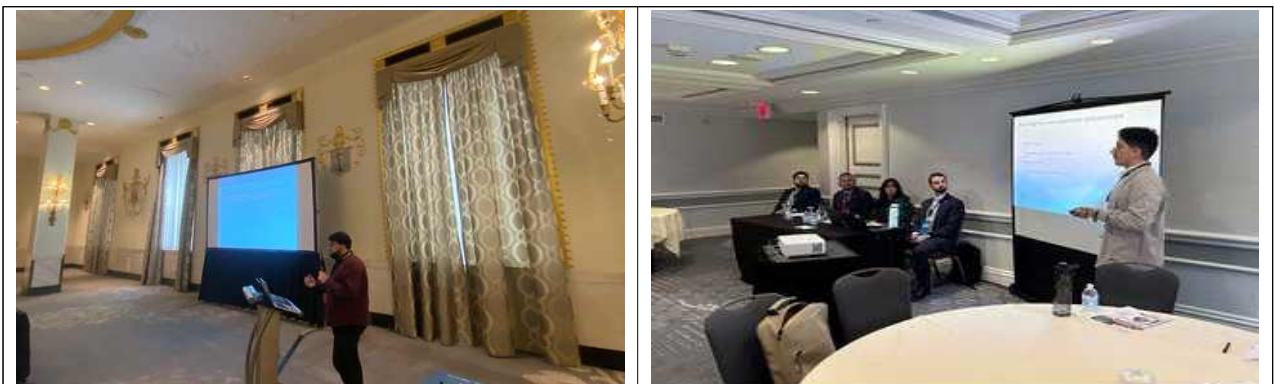
□ 주요내용

- (SKPA세션) Adopting and Using AI
 - (주제1) How does AI change the dynamics of accountability in public organizations?
 -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공공조직 내 책임성(accountability)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AI 기반의 의사결정 도구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알고리즘 투명성 부족, 통제 가능성의 약화 등 새로운 거버넌스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 AI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민주성과 조직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지속 고찰할 필요 제안
- (발제2) Is redundancy the answer? Adding artificial hands to accountability/s many hands
 - 공공조직에서 AI의 도입이 기존의 책임 구조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AI를 단순히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결합하여 다층적인 책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발제2) Introducing the Public Values Audit Matrix to Predict Potential Harm from AI
 - AI의 공공부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공가치 감사 매트릭스(Public Values Audit Matrix)' 논의
 - AI가 공공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
- (발제4) AI in Public Administr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U.S. State Regulation
 - AI의 공공행정 도입에 따른 규제적 도전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제안
 - 여러 주 정부는 AI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마련하고,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개발과 시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AI의 공공부문 도입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평가
- (발제5) Navigating the Evolution of GAI: Challenges and Innovations in Standardization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GAI)의 발전과 이에 따른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G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 기술적, 윤리적 표준의 부재는 큰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 국제협력을 통해 GAI의 안전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발제6) That's What AI Said: Incorporating AI into the Public Administration Classroom
 - 공공행정 교육에 AI를 통합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탐구
 - AI를 교육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 문제 해결에 AI 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AI의 윤리적 사용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고찰 필요성 제안
- (Rutgers 세션) "A Century of Warnings about 'Machine Intelligence' from the Arts and Humanities"
 - (개요) AI 기술발전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을 강조. 기술 발전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제안
 - (주요내용) 기계, 인공지능에 대한 시각을 조망하며, AI 기술이 인간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
 - (윤리적·사회적 영향) AI 기술이 인간의 가치, 권리, 자유에 미치는 잠재 위협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 (인간성과 기계지능의 경계) AI가 인간의 사고, 감정, 창의성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가 인간성과 기계 지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 고찰
 - (기술의 사회적 책임) AI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 어떻게 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필요

□ 사진자료



□ 개 요

- 일 시: 2025. 3. 30.(일), 13:00-19:00 (현지시간)
- 장 소: The Mayflower Hotel-세션홀 (2025 미국행정학회 개최지)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KAPA 세션1	Jeeseun Baik, Sounman Hong (Yonsei University)
	Mina Jung, Sam Youl Lee (Yonsei University)
	Kwangh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tae Choi (Kyungnam University)
	Hyungjo Hur (Dankook University)
KAPA 세션2	Sung Eun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sub Kum (Seoul National University)
	Dabeen Kwack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lk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am Youl Lee (Yonsei University)
	Jeeseun Baik (Yonsei University)
	Sounman Hong (Yonsei University)
	Mina Jung (Yonsei University)
	Sam Youl Lee (Yonsei University)
	Kwangh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lk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ntae Choi (Kyungnam University)
	Si Kyung Seong (Dankook University)
	Hyungjo Hur (Dankook University)

※세션에 참여한 해외거주 한국인 연구자, 해외 연구자들과 네트워킹 추진 (약 5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KAPA 세션1

- (주제1) Public vs. Private Sector Performance and Global Talent Retention
 - (개요) 글로벌 인재 확보와 유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지를 분석. 전 세계적으로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부문은 경쟁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직 전략 운영이 필요
 - (글로벌 인재유치)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명확한 복지 체계, 사회적 기여의 가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연구 지원이나 국제 연구 협력 프로그램 등은 외국인 인재가 공공 연구 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 다만, 경직된 행정절차와 위계적인 조직문화, 승진 기회의 제한성 등은 외국인 인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
 - (조직문화/인재적응) 민간부문은 유연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해외인재의 관심을 끌고있는 상황.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다문화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인재가 적응하기에 비교적 수월하며, 커리어 성장 경로도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
 - (시사점/논의) 한국의 공공부문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인사제도와 국제 인재 친화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 이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정책 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분야로, 국제 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커리어 트랙, 언어·문화 적응 지원, 정주비자 연계 프로그램 등이 공공 부문에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주제2) Who Stays after the Ph.D.? Exploring Foreign Ph.D. Holders in Korea
 - (개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이 학위 취득 이후 어떤 조건 하에서 한국에 남아 정착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유학 후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박사급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고찰 필요

- (정착측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정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체류 자격(비자)의 안정성, 직업 연계의 용이성, 가족 동반 가능성, 언어 및 문화 적응환경 등이 존재
- (이탈측면) 비자와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졸업 이후 고용 비자 전환이 까다롭거나 단기 체류만 허용되는 등의 제도적 장벽은 실제로 한국에 남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언어장벽과 한국 사회의 동질적 문화 환경도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 가능
- (유형) STEM(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졸업자들은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착률을 보이나,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들은 취업의 기회 자체가 적거나 문화적 장벽, 경력개발 한계로 인해 모국이나 제3국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존재
- (시사점/논의) 외국인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졸업 직후 일정 기간 자동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전환형 비자 제도',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글로벌 커리어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

○ KAPA 세션2

- (주제1) Who Considers Leaving?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Status Disparities on Young Workers' Turnover Intentions
 - (개요) 조직 내 세대 간 직업적 지위(occupational status) 격차가 젊은 근로자의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상위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높은 직위와 자원의 집중이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며, 조직 이탈 욕구가 강화될 가능성 등을 논의
 - (세대 간 직업 지위 불균형) 상위 직급이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 또는 X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의 구조적 현상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에게 제한된 성장기회, 승진제약 등의 인식이 존재. 직무수행 능력과 별개로 경력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는 성과중심의 직업윤리를 가진 젊은 세대에게는 심리적 불만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가능

- (이직의도) 직업지위의 불균형은 조직 내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직무몰입도 감소 및 이직의도 증가를 초래. 직장 내 희망이 없는 경우가 이직의 주요사유이며, 구조적 세대 갈등 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
 - (시사점/논의) 세대 간 공정한 승진 및 평가 기준을 마련, 젊은세대를 위한 경력 성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관리자 훈련 및 멘토링 제도 운영,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등을 제안
- (주제2) Can Digitalization Reduce Burden? The Impact of Digital Applications and Digital Literacy 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 (개요)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공공부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역할 탐색
 - (디지털 전환과 행정부담) 전자정부 시스템, 온라인 행정 절차, 모바일 민원 서비스 등 디지털화는 본래 행정업무의 단순화·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무자 또는 수혜자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 디지털화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 부담을 줄이지 못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측면
 - (행정 효율화)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용자 중심 설계, 다국어 지원 등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발생 가능. 행정 디지털화는 정책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의 업무경험 개선에 있다는 점 강조

□ 사진자료



□ 개 요

- 일 시: 2025. 3. 31.(월), 09:00~12:00
- 장 소: The Mayflower Hotel-세션홀 (2025 미국행정학회 개최지)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세션	Emily Boykin (Augusta University)
	Benjamin Brunjes (University of Washinton)
	Ana Maria Dimand (Florida State University)
	Yu-Heong Jung (Indiana University-Blommington)
	Chirsty Smith (University of New Haven)
	Joshua Steinfeld (Old Dominion University)

※병행세션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기세션 이외 주제별 교차참석 (참여세션 기준 약 30여명 참석)

□ 주요내용

○ Ethics in Public Procurement

- (주제1) AI in Procurement: Identifying Ethical Tradeoffs
 -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가져오는 윤리적 균형에 대해 논의. AI를 활용한 조달 시스템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데이터 편향, 투명성 부족, 인간중심의 의사결정 약화 등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과, 윤리적 균형의 식별과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 제안
- (주제2) Ethical Procurement in the 21st Century
 - 공공조달에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과 그 적용방안 논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조달의 윤리적 기준의 설정과 실행에 대한 논의

- (주제3) Professionalism and Values in Public Procurement

-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가치의 관계를 조망. 공공조달 전문가가 직무 수행 시 윤리적 가치와 전문성을 어떻게 통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례와 이론탐색 논의

○ **Government Transparency**

- (주제1) Whitewashed Honesty or Frank Transparency: Report Comprehensive Performance

- 정부 성과보고서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 견지 제안. 정보의 선택적 공개나 과장된 표현이 공공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제2) Assess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on Citizen Satisfaction

- 지방 정부의 투명성이 시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정보공개 수준과 시민의 신뢰 및 정책수용도 간의 관계를 조사, 투명한 정부 운영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지 여부를 평가

- (주제3) Government Financial Disclosures and Credit Ratings: Evidence from State Reports

- 재정보고의 질이 높을수록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정부의 신용등급 향상의 근거 제시

- (주제4) Live Law Enforcement: How Do ICTs Enhance Public Accountability toward SLBs

- 정보통신기술(ICT)이 법 집행 기관의 공공 책임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공개가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시민신뢰 증진방안 논의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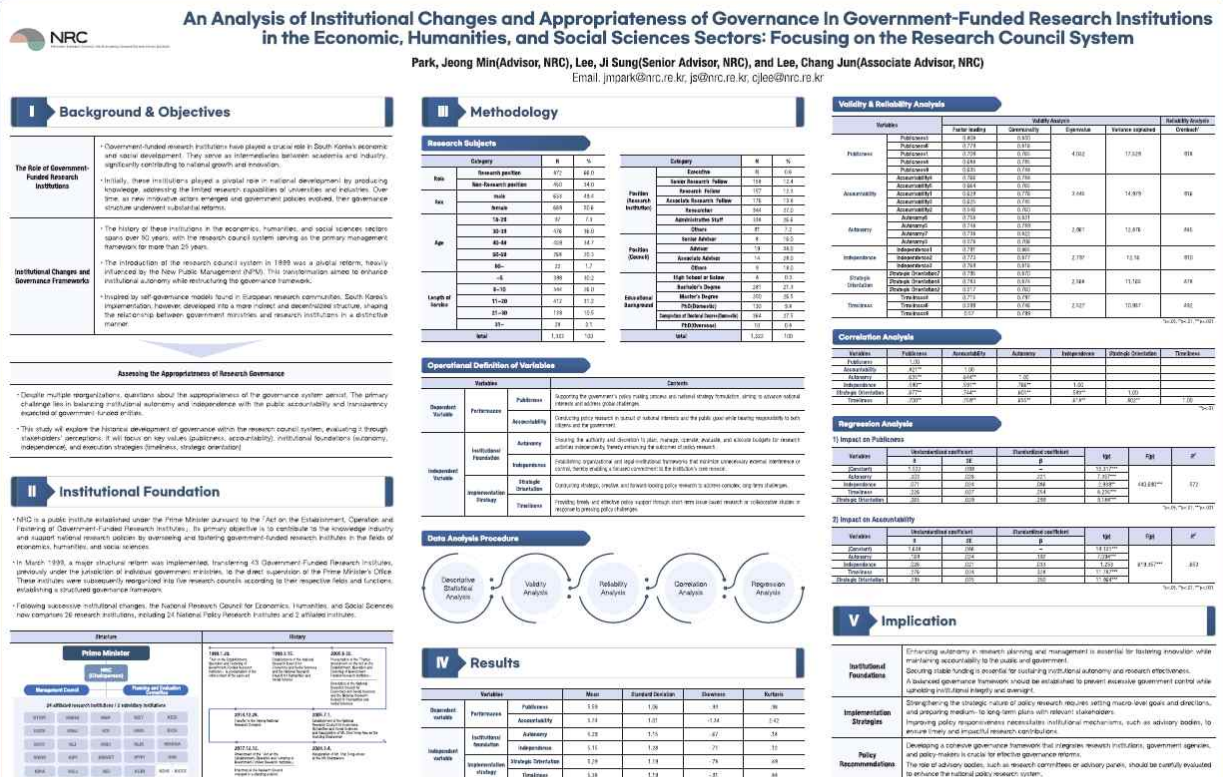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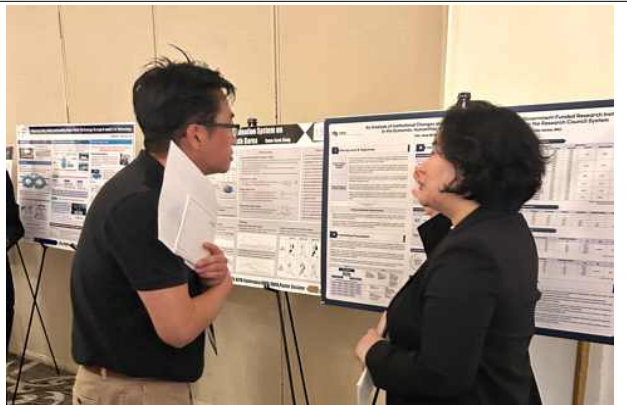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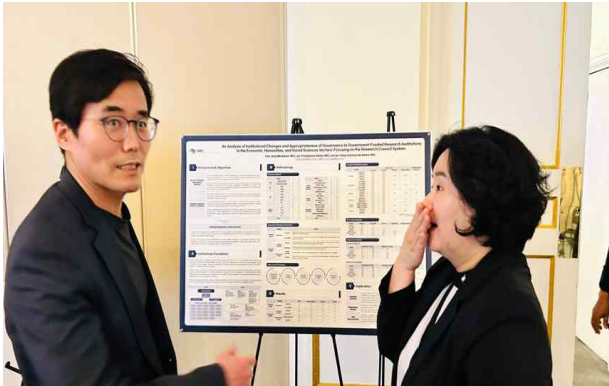
- 일 시: 2025. 3. 31.(월), 14:00~19:00
- 장 소: The Mayflower Hotel-세션홀 (2025 미국행정학회 개최지)
- 참석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4개 기관 (약 120여명 참여)

□ 주요내용

- (발제)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ors: Focusing o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 사진자료





- Bridge the Innovation: Transforming Public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Futur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Implications from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in South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High-Tech Brain Outsourcing Strategy, Tackling 0.7 Birthrate Crisi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South Korea's strategic Green New Deal ODA for Global Shared Prosperity (*Korea Forest Service &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Korean Association for Forest Administration*)
- Next-Generation Emergency Response System: Enhancing Safety and Efficiency in Disaster Management (*Korea National Fire Agency*)
- 'K-Ricebelt Project' to improve rice self-sufficiency in Afric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Securing Public Safety and Leading Global Water Technology through K-water's AI Technology (*K-water Research Institute*)
- Development Direction for Korea's Basic Pension: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ors: Focusing o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dvancing Plastic Waste Recycling and Circular Economy in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South Korea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 Best Practices for Improving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AI and Big Data Technology from the Korean Government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 Gyeongbuk Sangju Smartfarm Innovation Valley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Advancement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 Impact of early-stage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ment: Insights from Porter hypothesis and agent-based modeling simulatio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Yonsei University*)
- The impact of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s on fiscal disparities in South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Why Gen Zers Are Leaving Public Service? Examining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Their Career Decisions (*Dankook University*)
- Let the Citizen Hack the Wicked Problems: Civic-Tech in Korea (*Konkuk University*)
- Development of K-Mobile ID Service Led by Public-Private Converg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outh Korea's Welfare Attitudes and Policy Implications: An Analysis Based on Income Levels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Evolution of Demand-side Financing in Social Service in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AI : A Case Study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 Research on the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hared E-scooter Parking Space Supply i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What Makes K-Gov Unique? Exploring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GovTech of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 SUNY Albany*)
- Adapting to Crisis: Insights into Adaptive Governance from the Pandemic Responses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North Texas*)
- Telework as a Recruitment Strategy: Can Telework Attract Young Talent to Government Jobs (*University of Utah*)

□ 개 요

- 일 시: 2025. 4. 1.(화) 14:00~17:00
- 장 소: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 학장실 등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SAIS	James B. Steinberg (President)
	Nwankwor (Vice-President)
	Gabrielle Roberts Hendy (Manager)

※현지 통역사 및 기관 담당자 2인 배석

□ 주요내용

-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기획 관련 추진방향 공유
 -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임
 - 특히, 기관고유사업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기획 사업을 추진중이며, 정책연구 거버넌스와 관리전략,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발전방향과 기관 간 협력제고를 위해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 운영체제 및 연구동향 논의
 - (연구지원체제) 기본적인 연구지원 체계는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팀이 가치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펀딩을 신청하는 방식임. 기관차원에서는 소액펀딩을 제공하고 대규모 연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형식임

- (연구지원금 확보방식)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관의 연구 제안 심사 및 연구자금 지원 절차는 유사하며, 경쟁력 있는 연구주제 또는 혁신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의 연구지원 방식) 정부의 연구지원 방식변화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나 편당이 감소할 경우 보건,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데이터 확보 및 관리) 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한 편이며, 오리지널 데이터 생성 및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을 통해 인간 관련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보호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함.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은 연구의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음. 데이터 수집, 보관, 관리 및 사용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와 리뷰 등을 거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연구, 정책지식의 전파가 궁극적으로 목표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 (연구 자율성) 민간 및 정부 편당 연구에 대한 대학 차원의 윤리적 검증 및 관리 시스템이 존재함. 연구주제 선정, 구성 요소 결정 등 연구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율성이 존중되는 풍토임. 연구자의 임용과정에서 혁신성과 정책지식에 대한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검증하고 임용 이후에는 최대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임. 연구자금은 외부 편당에 기반하더라도 기관은 연구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음
- (연구기획 및 연구프로세스)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연구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획함. 자체적으로 편당을 마련하되 연구수행, 과정 관리, 평가를 포함하는 구조로 고려되고 있음. 즉,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체제로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연구기획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연구자 성장지원) 다양한 단계의 연구자(초기, 중간, 시니어) 채용 과정의 어려움 또한 상존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의 연구자를 위한 시니어 교수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과관리) 연구성과와 행정지원 성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회년도 또는 다른 펀딩에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중임.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에 따른 관리적 차원의 책임 또한 강조함
- (AI활용 가이드) AI 관련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 본 기관은 IRB를 통해 연구 데이터 관리, 국가적 차원의 통용기준에 따라 AI 활용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중임. AI 활용 라이선스 문제와 관련, 연구자료 작성 시 활용현황을 명시하도록 관리함. AI 활용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데이터 소유, 활용에 대한 규제 부재 및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AI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정책연구 성과확산) 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연구성과 공유,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와 고민이 상존하고 있음. 정책 대학원생들의 높은 참여의지와 정책 영향력 확대 목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과 확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다만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상징성으로 인해 정부 등과의 기민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대학원 특성상 정책 영향력 제고에 대한 개인적, 기관적 차원의 높은 동기 등을 기반으로 연구성과 확산과 정책기여 상의 애로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임
- (정책지원)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펀딩의 비중과 정부 제안 연구주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중임

○ 기관 간 교류·협력 추진 제언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분야별 정책연구지원 및 수행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류·협력 필요시 협조하겠음

□ 사진자료



기관개요	<p>·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교(또는 폴 니츠 고등국제학대학원(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소속기관으로, 국제관계, 경제, 외교, 정책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원</p> <p>·캠퍼스는 워싱턴 D.C.로서, 외국 대사관이 59개 위치한 메사추세츠 거리의 "대사관 길"에 위치</p>
주요역사	<p>·SAIS는 1943년, 폴 니체(Paul H. Nitze)와 크리스찬 허터(Christian Herter)가 설립하였으며, 1950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편입</p> <p>·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후 미국이 맡게 될 여러 문제와 책임들에 대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p> <p>·초기, 타 대학에서 여러 교수 및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제관계, 국제정치 및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대학의 커리큘럼은 매우 학문적이면서도 실용적하도록 고안</p> <p>·미국의 외교정책이 정해지는 곳으로서 대학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워싱턴 D.C.로 선정, 1944년 첫 개강당시 15명의 학생이 등록</p> <p>·1955년, SAIS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SAIS 볼로냐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유럽에 위치한 첫 미국대학 소속 대학원이었으며 1963년에 이르러 SAIS는 플로리다 거리에 속소를 짓게 됨은 물론, 계속 성장하여 현재 캠퍼스가 위치한 메사추세츠로 이전, 1986년에는 중국 난징에 홉킨스-난징센터가 설립</p>
교육과정	<p>·SAIS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일반석사(Master of Arts), 국제공공정책학석사(MIPP, Master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와 박사학위를 수여</p> <p>·매년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워싱턴 캠퍼스에서 졸업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국제관계학 석사와 국제경제학석사를 취득</p> <p>·SAIS는 전공과목은 물론, 졸업을 위해서는 국제경제학 과정, 외국어 시험과 석사논문 대신 1시간에 걸친 구두시험 실시</p> <p>·국제경제, 국제관계(분쟁관리, 에너지자원 및 환경, 광역이론 및 역사, 국제법 및 국제 기구, 국제전략), 국제개발, 아프리카 연구, 미국외교정책, 아시아 연구(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학, 중동학,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서반구 연구(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15개의 외국어 수학 가능</p> <p>·SAIS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경영대학(Wharton School of Business), 다트머스 대학교의 터크 경영대학(Tuck School of Business),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난징대학교와 시러큐스 대학교의 맥스웰 행정대학원(Maxwell School of Citizen and Public Affairs)과의 정규 공동학위과정도 제공</p>

명성	<p>·2005년, 윌리엄 앤 매리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이 1,000명 이상의 외교 정책 분야 관련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이상의 설문자가 외교정책분야로 나가기 위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SAIS를 선택. 2007년, 같은 연구의 결과로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월시 외교대학원(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이 1위, 존스 홉킨스의 SAIS가 2위를 차지</p> <p>·SAIS 학생들은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선더버드 경영대학원(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이 주최 "지속가능 혁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모두 1위를 차지</p>
저명한 동문	<p>·현재 15,000명 이상의 SAIS 동문이 약 140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30여명은 대사 혹은 외교관</p> <p>·메들린 알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티모시 가이스너 현 미 재무부장관, 마하마트 알리 아도움 전 차드 주미대사, 피터 엘가이어 미 무역대표부 보좌역, 피터 플래허티 맥킨지 & 컴퍼니 명예이사, 로버트 포드 전 주 알제리 대사, 파멜라 플래허티 시티그룹 재단 대표이사 사장 및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장, 제프리 가튼 전 미 상무부 차관 및 전 예일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장, 가이어 하르데 전 아이슬란드 총리, 이태식 전 주 미국 대사, 존 맥래플린 전 미국 중앙정보부(CIA) 부장, 페데리코 미놀리 전 두카티 모터(Ducati Motor Holding) 대표이사, 카산드라 월든 UNDP 외부통신실장, 왕광야 전 주UN 중국대사, 클리프튼 와튼 전 미 국무차관 등</p> <p>·저명한 한국인 졸업생으로는 국회의원 정몽준, 현 외교부장관인 윤병세,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 및 대한 빙상경기 연맹 회장인 김재열,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안철수 대선캠프 외교정책 자문을 맡았던 윤영관 등</p> <p>·널리 알려진 교수진에는 End of History의 저자 프랑시스 후쿠야마, 전 재무장관이자 골드만 삭스의 전 CEO인 헨리 폴슨 등</p> <p>·2013년 7월, 스티브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대사 및 전 플레처 스쿨 학장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니츠고등국제학대학원 한미관계연구소 (U.S.- Korea Institute at SAIS) 회장으로 부임</p>

□ 개 요

- 일 시: 2025. 4. 2.(화) 10:30-16:30
- 장 소: Royal Sonesta 회의실 등
- 참석자:

구분	성명
연구회	이지성 기획조정부장
	박정민 전문위원
	이창준 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김다솔 통역사
	Sung Eun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abeen Kwack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내용(국문↔영문) 확인 및 검토 등

□ 주요내용

- 국가정책연구체제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의 면담·회의를 통해 미국 정책연구 거버넌스 체계,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전략, 학문과 정책 간 연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종합함
- 미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문적 논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 등 주요 학술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연구기관의 운영방식과 연구지원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행정학회 및 학회 국제협력위원회,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내·외 정책연구 협력기반 강화 관련 연구회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결과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관련 주제로 학계에 공유, 성과확산 지속을 제안받음
- 정책연구체제의 기능 정립 및 운영 개선, 연구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논의함